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What Men Do vs. What God Does

창세기 50:15-26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1월 16일 설교

¹⁵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¹⁶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¹⁷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¹⁸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¹⁹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²⁰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²¹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²²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일백 십세를 살며 ²³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²⁴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²⁵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데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²⁶요셉이 일백 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동생에게 비는 형들

본문에 보니 형 열 사람이 동생 앞에 엎드려 살려 달라 빌고 있습니다. 동생은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입니다. 형들은 처음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집트로 왔습니다. 거듭된 흉년으로 고생하다가 동생이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온 식구가 이집트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의 보살핌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 장례를 치른 다음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형들이 요셉 앞에 이렇게 엎드린 것입니다. 동생이 총리고 형들은 동생의 보살핌을 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엎드려 절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엎드려서 한 말을 보니 좀 이상합니다. “저희는 다 총리님의 노예입니다.”

형들이 동생의 노예라니요? 왜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동생을 찾아와 엎드리기 전에 형들이 걱정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거기 보니 답이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형들이 제 입으로 한 말이니 맞겠지요.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이라 하면서 동생에게 말까지 넣었습니다. “네 형들이 너한테 못된 짓을 했지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거라” 하고 아버지가 말씀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잘못을 용서해 달라 하였는데 표현이 참 거창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라고 소유격을 네 번 거꾸 쓰면서 아버지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까지 얹어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나쁜 짓을 하긴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나쁜 짓을 했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가장 먼저 걱정한 게 바로 동생의 보복입니다. 동생이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이고도 남습니다. 파리 목숨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유언이라 하면서 말도 전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이렇게 찾아와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지은 죄

형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다 아시지요?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창 37장).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 요셉은 아버지 곁에 함께 있다가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때 형들은 동생 요셉이 미운 나머지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 동생이 싸우는 일이야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지만 죽이고 싶고 정말로 죽이려 했으니 그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말형 르우벤이 말려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 버리자 했습니다.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 넣은 다음 나중에 몰래 구출해 아버지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멋진 형 같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르우벤은 맏아들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동생들이 요셉을 죽여 버리자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꾸중을 해야지 왜 구덩이에 던져 넣자 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르우벤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점수를 좀 따고 싶었습니다. 왜요?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첩이 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랑 동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첩이면 나한테는 어머니뿐인데 간통을 했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나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 했을 때 일단 살려 놓고 아버지한테 다시 데려다 줌으로써 모두가 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할 때 나는 홀로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구덩이에 가서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는 뭐라 했습니까?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원문 그대로입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두 번 거꾸 했습니다. 동생이 없어졌는데 자기 처지를 더 걱정한 것입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옆으러 빌고 있는 게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직접 문제가 되는 죄는 그것 하나였겠지만 어린 동생을 죽이겠다는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막기보다 나를 위해 이용해 먹으려 하던 르우벤의 죄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 게 그 이전의 간음죄니까 그 죄 역시 멀리 보면 요셉에게 지은 죄도 됩니다.

아버지의 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록 형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 아버지 야곱의 잘못도 큼니다. 무슨 잘못입니까? 자식을 편애한 죄지요. 편애는 자녀 가운데 일부만 사랑함으로써 나머지에겐 아버지의 사랑을 주지 않는 큰 죄악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열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열한째인 요셉을 유독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가 늘 그막에 낳은 아들이라 그렇다 했지만 (창 37:3) 형들이 볼 때는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라헬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창 44:20). 야곱은 아내가 둘 있었는데 라헬 하나만 사랑했습니다.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 둘인데 베냐민은 요셉만큼 아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정이 덜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아버지 야곱은 열둘이나 되는 아들 가운데 요셉 하나만 아껴 요셉한테만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자식을 편애한 문제가 아내를 편애한 데서 시작되었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의 죄도 포함됩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이지요. 라반은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를 속임수를 써 야곱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속임수부터 죄악이지요? 왜 속였습니까? 야곱이 양치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오래 붙잡아두면 재산이 많이 늘 거라 믿고 거짓말을 한 것이니 재물을 섬긴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요셉은 그럼 잘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만 주로 나오지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한 건 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때 요셉 나이가 열일곱이니 어린아이도 아니지요. 아버지가 입혀준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과시하고 아버지한테는 또 가서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으니 아버지의 편애에 슬쩍 편승해 나름 이익을 챙겨먹은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편애를 해도 요셉이 잘 처신했다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지는 않았겠지요.

요셉의 잘못보다는 물론 야곱의 잘못이 큼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는 그냥 모른다 해도 될 걸 요셉의 옷에 짐승 피를 묻혀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하나만 사랑한 아버지에게 그 자식의 죽음을 알려 사랑만큼 큰 고통을 안겨준 셈입니다.

죄 지은 나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니다.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다른 죄가 따라옵니다. 다윗은 처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지은 다음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안 지었더라면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도 안 지었겠지요. 죄는 또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곁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좋은 일은 전염도 잘 안 되는데 죄는 참 잘 번집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곁에 있는 사람도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든 죄는 지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해도 그것이 내 죄를 면제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핑계 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요 나를 짐승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 조카를 속인 외삼촌 라반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첫 아내 레아를 외면하고 둘째 아내 라헬만 사랑한 야곱에게 잘못이 없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반의 잘못은 라반의 잘못, 야곱의 죄는 야곱의 죄입니다.

야곱의 편애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편애의 씨는 누가 뿌렸습니까? 야곱의 부모가 뿌렸지요? 야곱 자신이 형에서랑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을 편애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를 편애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형이 죽이겠다 해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편애하는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 편애의 고리를 자기 대에서 못 끊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그래서 자식들 사이에 서로 죽도록 미워하게 만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동생 하나만 편애했다면 잘못이지요. 큰 잘못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애가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동생을 미워한 내 잘못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 내 죄는 내 죄입니다. 아버지가 편애했으니 원인을 제공한 셈이지만 사람은 그 원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팔아먹은 죄는 형들이 지은 죄, 형들이 책임져야 할 죄였습니다. 형들도 알고 동생 요셉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생 앞에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관점

동생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형들의 모습에는 갖가지 죄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지은 편애의 죄, 그 죄를 있게 만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탐욕,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고 그 죄를 무마해보려 애쓴 르우벤의 죄, 아버지의 사랑을 독점하며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친 요셉의 잘못,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버지의 편애에 분노하면서 동생을 미워해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의 죄, 이 모든 죄가 한 데 모여 오늘 이 서글픈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애걸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들려주는 대답을 보니 요셉은 형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형들은 목숨을 걱정하고 있는데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걱정이라 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니까? 일어난 일은 똑같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합니다. 형들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형들은 내가 지은 죄, 사람이 지은 죄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죄로 뒤덮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합니다. 악은 곧 형들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 15:13). 사람만 보면 요셉을 이집트로 오게 한 것은 형들의 죄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 45:5),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창 45:8) 하였습니다.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집트 관리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승장구해 집안 총무가 되었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간수의 일을 도왔고 거기서 왕의 신하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꿈을 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요셉의 말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면 마치 옛날 똥을 거름으로 쓴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좋게 쓰신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쉬지 않고 죄를 짓는 인간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 죄인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그래서 죄를 지어 쓰임 받던 사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써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

한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야곱입니다. 편애한 부모에게서 자라고 끝없이 서로 질투하는 두 자매를 아내로 맞아 자기도 자식을 편애하며 살았던 야곱이 사랑하던 요셉을 잃고 하나님의 연단을 거친 뒤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었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뒤 양식 때문에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 42:36-38). 라헬이 낳은 나머지 아들 하나마저 잃을 위기 아닙니까? 처음에는 못 보낸다고 버텼지만 양식을 구하자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어도 할 수 없다 한 걸 보면 자포자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에 요셉이 죽었다 할 때는 하나님은 언급조차 않은 채 그저 “아이고!” 하고 목 놓아 통곡만 하던 야곱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입니다.

술한 고난을 겪은 야곱이 나중에 이집트 왕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옛날 그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나 묻는 왕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떠돌아 다녀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히 11:13-16). 이집트 왕 앞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자기를 거기 묻어 달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 49:29).

형들을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만 바꾸신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도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동생 요셉만 편애할 때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엄청난 인신매매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요셉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준 범죄였습니다만 죄를 지은 형들도 그 죄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처음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은 신분을 숨긴 채 형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형들의 말을 고투리를 잡아 울무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형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죄였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 하며 서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이미 스무 해나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일을 만나자마자 이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동생을 팔아먹은 그 순간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동생을 팔아먹은 죄로 벌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곧 잊어도 내가 저지른 죄는 두고두고 남아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무 해 동안 형들을 괴롭힌 이 고통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새겨 주신 하나님의 법 때문입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한 번의 범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 아프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 형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갈 때 아버지가 막내는 못 보낸다고 우기자 맏아들 르우벤이 희생을 자처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 제가 베냐민을 산 채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자를 돌씩이나 죽이겠습니까마는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은 확실했습니다 (창 42:37). 아버지가 그래도 거절하자 유다가 또 나서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거듭 서약을 했습니다 (창 43:9). 그런 서약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요셉의 두 번째 시험에서 드러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려고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늙으신 아버지를 위해 베냐민은 살려 보내주고 대신 자기를 노예로 삼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창 44:33).

잘난 척하는 동생이 꼴 보기 싫어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주는 고통을 뺏속 깊이 느끼면서 죄를 철저히 미워하게 된 형들입니다. 전에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막내 베냐민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그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구하고자 애쓰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형들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주체할 수가 없어 울음을 터뜨리고는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삶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해서 예수를 팔아먹은 가롯 유다의 죄가 없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 짓는 인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차고 넘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째 교훈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물려주고, 죄를 퍼뜨립니다. 먼 옛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라반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자식들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집에서 싸우고 일하러 가서도 싸웁니다. 내 죄가 바이러스가 되어 다른 사람도 나를 따라 불평하고 욕하고 그래서 죄가 더 늘어납니다. 진리는 팽개치고 돈 찾아 쾌락 찾아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닙니다. 더 가지고 더 즐기려고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치고 죽입니다. 나도 얻어맞고 짓밟힙니다. 때로 참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먼 옛날 여러 사람의 죄를 오히려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쓰시고 죄 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이 짓고 물려주고 퍼뜨리는 죄를 수습하시고 막으시고 줄이시고 고리를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불쌍히 보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았어도 용서해 줍니다. 왜요? 죄 지은 그 사람은 더 고통을 받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도 변화시키시니 그 사람에게도 선을 이루시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죄로 피해를 입은 나에게도 그것을 선으로 유익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28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알 수 없는 고통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어야 하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피해를 입혔을 때도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나에게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했다고 보복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할 일입니다. 보복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요. 용서해야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일

요셉은 왜 달랐을까요? 요셉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아니, 믿음은 다 같은 겁니다. 요셉이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 (히 11:22).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후손 가운데 구세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죄만 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그 약속을 가르치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 해골도 파 가지고 가라 당부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한 그 마음 역시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를 믿는 그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먼 옛날 요셉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사람은 오늘도 죄 짓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또 이어져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 요셉이 변화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살았던 요셉의 형들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에 든 사람으로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 짓는 게 사람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악을 선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요셉도 좋은 본을 보였지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요셉처럼 우리도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이 쌓아가는 악을 하나씩 선으로 바꾸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흉내도 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우리 삶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